

부처님 제자 자공심 복돋을 '문패'

불교문패 달기 30만 개 보급 나서

“집에 불교문패 하나 다는 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 작은 문패라도 불자들의 집마다 달아,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불자들 집마다 불교문패를 달기 위한 30만개 보급 사업에 나선 불자가 있어 화제다. 일명 '에밀레 불자문패'로 알려진 문패보급 사업은 우리문화연구소 '보리울' 대표 이금지(법명 승만행)씨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웃 종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패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으나 불교계는 그렇지 못했다. 조형물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불교문패 보급 사업은 반가운 소식이다. '맑고 향기롭게'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08년 범불교 대회에 참가 후, 불교인들이 하나가 돼 "우리의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



불교문패 보급 운동을 펼치는 이금지 우리문화연구소 대표(왼쪽). 새롭게 디자인 된 '에밀레 불자문패'는 조선대학교 고현 교수가 디자인했다. 전국 30여 불자가정에 보급될 불자문패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각을 했다. 이 대표는 "개발된 문패는 최고의 불교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 혁신적인 불교디자인이 될과 동시에 전통 한국불교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패의 디자인은 맑고향기롭게 로고를 만든 고현(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가 했다.

고 교수는 "불자문패를 시작으로 디자인포교의 활성화와 진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패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가장 쉽고 짧게 번역한 '진리를 따르며, 세상과 더불어'를 실천 주제로 문패에 새겨 넣고,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을 이미지로 넣었다. 또 전체 문패 분위기를 고요하고

품위 있으면서 따뜻한 불교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력했다. 불자문패는 각 사찰에 유통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가로 제공이 되며, 사찰이름 등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돼있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borioul.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오신날 전북 봉축일정

전북지역 봉축행사가 4월 24일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다양한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4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기원탑을 점등으로 시작된다. 이어 26일 35사단 세병호 일원에서는 군 불자들의 연등제가 봉행되고, 30일부터 5월 14일에는 전북 학생종합회관에서 전북의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이 개최된다. 5월 9, 12일에는 전주 덕진공원과 학생회관에서 각각 어린이 큰 잔치를 연다. 5월 15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북불자 대규모 연등축제를 기점으로 봉축행사가 마무리된다. 5월 30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봉축행사 기간에는 양로원, 평생원, 교도소 등의 복지시설방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라북도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열고 봉축위원장에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 이영배

하심하며 신도들 돕는게 가장 큰 기쁨

전북불교회관은 전북불교의 일번지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중산사에서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의 중간에 위치해 기도와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쉽게 닿는 곳이다. 지역적 위치만이 전북불교회관을 전북불교수행 일번지로 만든 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이영배 거사(법명 보광·사진)의 남다른 신심이 일궈낸 숨은 불사였다.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으로 집안 안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회관 곳곳에는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전북불교회관 무료경로식당에 쓰일 보시 물품을 푸드뱅크를 통해 행기는 일도, 자원봉사자들과 운전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루 도시락 100여 개로 100여 어르신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전북불교회관은 법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날이 많다. 늘 지역의 세대별, 계층별, 신행단체들의 크고 작은 법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매주 일요일법회는 물론 어린이 법회, 청년회 법회, 대불련 법회, 운전 불자들의 법회, 군장 병들을 위한 법회 등 각종 신행단체들의 법회를 위해 우편물 발송, 메일발송,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발송 등 법회 준비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다. 스님과 신도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 하나다.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은 쉬는 날이 2-3일에 불과할 정도라고.

누구보다 바쁘기로 소문난 이 거사는 바쁘다고 핑그리거나 성내지 않는다. 편안한 미소로 불자들의 신생활을 돕는 전북을 대표하는 유마거사다. 그 비법이라도 있을까?

“하심으로 불자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내 부모님 모시듯 대하고 나를 낫추는 자제는 중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자제를 낫추어 신도들이 신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허허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하심의 마음이 활짝 꽃피었다.

이영배 거사는 집안 대대로 김계 금산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이 거사의 고모님은 전북불교회관 부지를 보시할 정도로 신심이 깊었고, 이러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제자로 성장했다. 그 속에서 배운 하심의 자세는 가족 간의 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전북불교회관에 상근하기 시작한 이영배 거사는 2002년 화엄불교대학의 학생처장 소임을 맡아 불자들의 교리공부를 도우면서 화엄불교대학 동문들 관리까지 하고 있다. 경허·만공·한영·용성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배운 전북지역에서 전북불교회관은 불교의 명성을 살리고 이어가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이영배 거사는 명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불자들의 신생활지도, 교육, 복지활동, 포교활동을 도와 21세기 선지식 배출도 꿈꾸고 있다. 그가 맡은 소임의 끝은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심하며 묵묵히 일하는 이영배 거사는 부처님 빛을 따르는 그림자였다.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

제3회 보문복지회 후원의 밤 행사

입장 수입금과 행사비용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여수지역 최대의 복지단체를 이끌고 있는 보문복지회는 4월 8일 2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보문복지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수 장윤정, 박현빈, 장미희, 연기자 강부자가 출연했다. 장애우와 어린이와 노인 등 모두가 한 자리에 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무료차 등을 제공해 행사 취지가 빛을 발하기도 했다.

진옥 스님은 인사말에서 "나눔이란 서로를 부자로 만드는 일이며, 행복을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의 보시는 따스한 마음과 함께 이웃에게 전달돼 행복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출연한 강부자씨는 "남을 돕는 일에 불자들이 나서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새만금 성공 및 무사고 기원대제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천안함 침몰 천도재 함께 치뤄

세상에서 가장 긴 33km 새만금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공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총무원(원장 일허)은 4월 4일 새만금 방조제 시작점인 부안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 및 일만 침몰 무사고 안전 대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기원대제에는 서해 백령도 천안함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해군장병들의 빠른 회복과 실종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구조작업 도중 순직한故 한주호 준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승정원장 남파 스님, 봉행위원장 향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유운순 태고종 전국 신도회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총무원은 4월 4일 새만금 가력배수갑문에서 새만금 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위한 기원대제를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인드라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판소리, 경기민요, 사물놀이, 살풀이, 회심곡 등 식전행사에 이어 법요식, 기원대제가 진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뜻 깊은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총무원장

일허 스님은 "과학문명의 발달은 소중한 생명의 위협을 불러왔다. 천도제를 통해 죽어간 무수한 미물의 환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스님은 법어에서 "성스러운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친환경 도시의 불국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고문헌 디지털 작업 완료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경 서적 등 디지털 자료화를 마친 고문헌 321종 422책이 전남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lib.jnu.ac.kr)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이정애) 교수는 송광사 소장 고문헌 798종 1531책 가운데 1254원 분사도감(分司都監)에서 간행한 '천태은사한산습득시집(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목판본)', 1411년 고창현 문수사(文殊寺)에서 간행한 '대전화상주심경(大顯和尚注心經, 목판본)' 등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본 321종 422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마쳤다고 4월 8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심명섭 과장은 "1차 DB 작업에 70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지 못하는 소중한 자료가 많았다"며 "6월경 송광사박물관, 영광 불갑사 소장 고문헌 등의 DB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상용신비어연구소
■재질: 순금(불교문화재)
■재: 100% 순금(상용신비어)
■높이: 11.10cm
■중량: 45cm
■길이: 13.3cm
■무게: 2kg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윤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윤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무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윤장대입니다.

[순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저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